

**201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강의테스트**

**인문계열 B형**



성명	
전형	
수험번호	

1.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내용을 실제에 적용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먹어, 먹으니’와 같이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는 것은 ㉠을 적용한 것이다.
- ② ‘굳이, 같이’와 같이 두음법칙을 반영하지 않고 적는 것은 ㉢을 적용한 것이다.
- ③ ‘퍼서(푸+ 어서)’, ‘꿔다(푸+ 었다)’에서 어간을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대로 적는 것은 ㉠을 적용한 것이다.
- ④ ‘미답다, 우습다’를 ‘믿답다, 웃습다’로 적지 않는 것은 ㉢을 적용한 것이다.
- ⑤ ‘노인(老人)’의 ‘노’와 ‘경로(敬老)’의 ‘로’가 같은 것인데도 ‘노’와 ‘로’로 달리 적은 것은 ㉢을 적용한 것이다.

2. 다음 중 한글맞춤법의 음소주의와 형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여자’는 한국어의 두음법칙 현상이 반영된 표기로서 형태주의에 입각한 표기이다.
- ② ‘독립문’은 한국어의 자음동화 현상이 반영된 표기로서 음소주의에 입각한 표기이다.
- ③ ‘시냇가’는 사잇소리 현상이 반영된 표기로서 형태주의에 입각한 표기이다.
- ④ ‘사람이’는 체언과 조사를 구별해서 적는다는 음소주의에 입각한 표기이다.
- ⑤ ‘먹어서’는 용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는다는 형태주의에 입각한 표기이다.

3. 한글맞춤법에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가 적용된 말과 ㉢가 적용된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2점)

- ① ㉠굴주리다-㉢시꺼멓다                      ② ㉠넘어지다-㉢사라지다                      ③ ㉠드러나다-㉢정답다
- ④ ㉠또아리-㉢따리                              ⑤ ㉠설거지-㉢부리나케

4. 다음 중 사이시옷 표기가 잘못된 것은 몇 개인가?(2점)

갯수, 횃수, 헛점, 숫자, 찻간, 종갓집, 텃마당, 뒷머리, 만듯국, 좇점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없음

5. 다음 중 한글맞춤법의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5점)

- ① 사이시옷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만 쓴다.
- ② 단어를 구성하는 두 요소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만 쓴다.
- ③ 단어를 구성하는 두 요소 중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만 쓴다.
- ④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에 쓰는 경우는 없다.
- ⑤ 북엇국, 텃간, 장마비, 최소값은 모두 올바른 표기이다.

6. 다음은 한글 맞춤법 제21항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를 실제에 적용한 것 중 잘못된 것은?(3점)

명사나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다만 겹받침의 끝소리가 발음되지 않는 경우,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① ‘알다[알:따]’의 어간 ‘알-’에 ‘-다랴-’이 결합하면 ‘알따랴다’로 적어야 한다.
- ② ‘굽다[국:따]’의 어간 ‘굽-’에 ‘-다랴-’이 결합하면 ‘굽다랴다’로 적어야 한다.
- ③ ‘짧다[짤따]’의 어간 ‘짧-’에 ‘-다랴-’이 결합하면 ‘짧다랴다’로 적어야 한다.
- ④ ‘넓다[널따]’의 어간 ‘넓-’에 ‘-직하-’가 결합하면 ‘널찍하다’로 적어야 한다.
- ⑤ ‘늑다[늑따]’의 어간 ‘늑-’에 ‘-직하-’이 결합하면 ‘늑직하다’로 적어야 한다.

7. 다음 중 한글맞춤법에 오류가 없는 문장은?(2점)

- ① 작년부터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들어났다.
- ② 어린 시절 등갯길에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큰 방아간이 있었다.
- ③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맹장염에 걸리셔서 맹장을 드러내셔야 했다.
- ④ 요즘은 웃어른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 ⑤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니?

8. 다음 중 언어와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5점)

- ① 문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언어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 ② 문자는 음성 언어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약점을 가지지만 음성 언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다.
- ③ 언어는 시각적인 도구이고 문자는 청각적인 도구이다.
- ④ 현대에는 대부분의 언어가 문자로 기록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수와 문자의 수는 비슷하다.
- ⑤ 문자의 기원은 고대인들이 동굴의 벽 등에 새긴 그림들이다.

9.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2점)

- ㉠ 이집트 상형 문자는 그림 문자에 속한다.
- ㉡ 문자의 역사에서 표의 문자가 표음 문자보다 먼저 발달하였다.
- ㉢ 일본에서 사용되는 가나는 음절 문자이자 표음 문자에 속한다.
- ㉣ 한자는 한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므로 음절 문자라고 할 수 있다.
- ㉤ 음절 구조가 복잡한 문자는 음소 문자보다는 음절 문자를 쓰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 ① ㉠, ㉡, ㉢, ㉤      ② ㉡, ㉢, ㉤      ③ ㉠, ㉢, ㉤      ④ ㉡, ㉢      ⑤ ㉠, ㉣

10.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2점)

- ㉠ 문자 ‘훈민정음’은 8인의 집현전 학자들의 주도로 창제되었지만 책 『훈민정음』은 세종이 직접 집필한 책이다.
- ㉡ 훈민정음은 음소 문자면서도 음절 단위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 ㉢ 초성자에는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가 있고 중성자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가 있다.
- ㉣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이 모두 ‘발음기관 상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상형 문자에 속한다.
- ㉤ 책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해례’라고도 불리며 문자 ‘훈민정음’의 사용법과 문자 창제의 철학적 기반을 설명한 책이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⑤ ㉢, ㉤

11. 훈민정음에 반영된 언어학적 지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1.5점)

- ① 자음은 각각의 글자 모양 속에 그 글자가 가리키는 자음의 음성학적 특징과 자음들 사이의 음성적 관계가 담겨 있다.
- ② 같은 조음 위치에 속하는 자음을 나타내는 글자들은 대체로 형태상 공통점을 지닌다.
- ③ ‘ㄷ’에 획을 추가한 ‘ㅌ’의 소리는 ‘ㄷ’ 소리에 된소리 자질을 추가한 것에 해당한다.
- ④ ‘ㄱ, ㅋ, ㆁ, ㄷ’와 비교하면 ‘ㄴ, ㄷ, ㄹ, ㅁ’는 획을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데 이 획은 ‘ㄴ, ㄷ, ㄹ, ㅁ’가 이중모음임을 나타낸다.
- ⑤ 중성자는 모음조화 현상과 관련하여 동일한 부류로 기능하는 모음들의 관계를 글자 모양에 담고 있다.

12. 다음은 훈민정음과 관련한 사실들이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훈민정음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2점)

- ㉠ 초성자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 ㉡ 중성자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떴다.
- ㉢ 기본자에 가획하여 새로운 초성자를 만들었다.
- ㉣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
- ㉤ 기본자 외의 8개 중성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 ㉥ 중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중성에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근호: ㉠에 해당하는 글자는 ‘ㄱ, ㅋ, ㆁ, ㄷ, ㄹ’의 다섯 개야.

여원: ㉡는 ‘ㅇ, ㆁ, ㅁ’의 세 모음을 말하는 거야.

혜인: ㉢에서 기본자에 가획한 초성자는 ‘ㅋ, ㆁ, ㅌ’ 등을 말하는 거야.

주연: ㉣는 ‘ㄷ, ㅌ, ㅍ’ 등을 만든 과정을 설명한 거야.

성훈: ㉤를 보니 ‘ㄱ’는 ‘ㅇ’와 ‘ㅣ’를 합해서 만든 글자구나.

은지: ‘각’에서 초성에 쓰인 ‘ㄱ’을 중성에도 사용하는 것은 ㉠와 관계가 있겠네.

- ① 근호, 혜인      ② 근호      ③ 혜인, 주연      ④ 성훈, 은지      ⑤ 여원, 혜인

13. 다음 중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말을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은?(1.5점)

- ① 영호: “저기 ‘뚜레주르’라고 한국어로 써 있잖아.”  
② 수진: “저는 영어는 잘하는데 한글로 말하는 건 힘들어요.”  
③ 다현: “내 동생은 아직 한글도 못 배웠어.”  
④ 진아: “우리 민족의 반만 년 역사가 깃든 한글에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은데 외래어와 인터넷 신어의 범람으로 한글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⑤ 민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보다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게 몇 배는 더 힘들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15번)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녀러신고요  
어기야 큰 디를 드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논디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현대어 풀이)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어기야 멀리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 곳이나 다 놓고 계십시오  
어기야 내 가는 곳 날 저물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14.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5점)

- ① 여음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만들어 낸다.
- ② 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
- ③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④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서사 갈래에 속한다.
- ⑤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이다.

15. 위 작품이 속하는 역사적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5점)

- ① 고려 시대 궁중에서 음악과 함께 연행되었던 우리말 문학이다.
- ② 남녀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많아 조선 시대 유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 ③ ‘가시리, 정과정, 정석가, 제망매가, 안민가’ 등의 작품이 전한다.
- ④ 민요처럼 구전되어 오다가 한글 창제 후 한글로 기록되었다.
- ⑤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이 많고 진솔한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모습이 보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6~17번).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의를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 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히 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에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대사가 응낙하여 이르기를,

“이제 마땅히 『금강경』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들이 있을 것이니 너는 잠깐 기다리라.”

김만중, 「구운몽」 중에서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점)

- ① 대화가 진행되면서 인물 간의 관계가 드러난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있다.
- ③ 내적 독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다.
- ④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 ⑤ 인물의 발화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표현된다.

17. 윗글의 ㉠~㉥ 중 다음 [보기]에 나오는 시조에 담긴 「구운몽」의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보기] 구운몽은 오랜 기간 전승되면서 수용자들에 의해 그 주제가 다양하게 인식되었다. 아래 시조는 「구운몽」 주제의 한 측면을 보여 준다.

천하명산 오악지중에 형산이 높고 높다

당 시절의 젊은 중이 경문이 능통하므로 용궁에 봉명하고 석교 위 늦은 봄바람에 팔 선녀 희롱한 죄로 환생인간하여 출장입상타가 (중략) 난양 공주 영양 공주 진채봉가준운 계섬월 적경홍 심요연 백능파와 슬커정 노닐다가 산중일성의 자던 꿈 깨었구나 아마도 세상명리와 비우회락이 이러한가 하노라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한 다음 글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구운몽」이 한국 문학에 속한다는 반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2점)

구운몽은 어느 나라 문학인가? 그것은 물론 중국 문학이다. 그 취재(取材)가 중국에서라 하여 중국 문학이 아니라 그 문이 중국문(中國文)이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 다만 작자가 조선인일 따름이다.

이광수, 「조선 문학의 개념」 중에서

- ①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더라도 문화나 의식 면에

서 한국인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들이 창작한 문학 작품을 한민족 문학의 범주로 포괄할 수 있다. 가령 중국 동포 작가 김학철이 한국어로 쓴 소설 「걱정시대」도 한국 문학에 속한다.

- ② 미국 동포 작가 이창래가 영어로 쓴 소설 「영원한 이방인」은 한국 문학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한국 문학의 중심은 국문 문학이 담당했으며 그 흐름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④ 북한의 문학도 민족 문학으로서 이해하고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용할 수 있다. 가령 북한 작가 홍석중의 소설 「황진이」도 한국 문학에 속한다.
- ⑤ 한문은 한국어를 바탕으로 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동아시아 공동의 문어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한문 문학도 한국 문학에 포함될 수 있으며 김시습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가 한국 문학에 속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19. 다음 중 한국 문학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점)

- ㉠ ‘서정’은 인간의 경험이나 정서를 산문으로 표현한 갈래로서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자아화’의 특징을 가진다.
- ㉡ ‘서사’는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표현한 것으로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의 특징을 가진다.
- ㉢ ‘교술’은 일상적인 경험과 생각을 직접 서술하는 것으로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의 세계화’의 특징을 가진다.
- ㉣ ‘극’은 인간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행동으로 재연한 것으로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의 특징을 가진다.

- ① ㉠, ㉡, ㉢, ㉣
- ② ㉡, ㉢, ㉣
- ③ ㉡, ㉢
- ④ ㉢
- ⑤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0~22번).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20.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5점)

- ① ‘아직’은 화자가 모란이 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② ‘나의 봄’은 화자가 모란이 피어야만 진정한 봄이라고 여기며 모란에 대해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음성상징어 ‘뚝뚝’은 모란이 질 때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④ ‘삼백예순 날’은 화자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며 긴 시간을 인내했다는 점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⑤ ‘찬란한 슬픔의 봄’은 모란의 개화를 맞이하는 기쁨과 모란이 진 후의 슬픔이 공존한다는 화자의 역설적 인식을 드러낸다.

21. [나]의 시적 화자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5점)

- ① ‘우리’도 새들처럼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기를 바라는 것을 보아 화자는 ‘이 세상’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우리’도 ‘대열’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을 보아 화자는 ‘대열’을 ‘흰 새 떼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 ③ 화자가 '어디'라는 불명확한 공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이 세상 밖'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켜내는 일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마지막 행의 '주저앉는다'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 ⑤ '낄낄대면서, 깔깔대면서'는 '이 세상'에 대해 조롱하는 태도를 표현한다.

22. [가]와 [나]의 작품이 속한 역사적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3점)

- ㉠ 운율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어서 낭독을 하면 리듬감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 ㉡ 시어는 일상 언어를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상 언어가 지니는 의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 ㉢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이므로 음악성을 지닐 수 있지만 회화성은 표현되기 어렵다.
- ㉣ 유사성과 인접성에 기반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관계를 창조적으로 재설정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사용된다.
- ㉤ 반어와 역설이 자주 사용된다. 반어는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심상이나 관념이 하나로 수용되어 보다 차원 높은 세계가 펼쳐지는 경우를 말하고 역설은 표현된 의미의 이면에 표현된 의미와는 다른 진실이 감춰져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 ① ㉠, ㉡, ㉣      ② ㉠, ㉡, ㉤      ③ ㉡, ㉤      ④ ㉠, ㉡, ㉣, ㉤      ⑤ ㉠, ㉢, ㉤

23. 문학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점)

- ① 인류 초기의 문학은 극과 서사 문학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차 서정 문학도 발달하게 되었다.
- ②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의 이분법은 언어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 ③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의 이분법은 전달 방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 ④ 한국 문학에서 사용하는 서정, 서사, 극, 교술의 사분법은 작품의 표현 양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 ⑤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문학 작품을 분류한 것을 최초의 문학 분류로 본다.

24. 한국 문학의 갈래 중 '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5점)

- ① 극은 무대에서 배우가 등장하여 직접 연행하는 갈래로서 그 대본은 소설이다.
- ② 원시 시대의 제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 ③ 가면극, 인형극, 탈춤, 판소리 등이 극에 속한다.
- ④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신파극의 영향을 받아 신극(新劇)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⑤ 근대극은 서양식 극장이 설립된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5. 다음 작품이 속한 역사적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5점)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이 눈물계워 흐노라

원천석 시조

- ① 고려 말부터 출현한 3장 형식의 정형시로서 각 장은 보통 4음보로 구성된다.
- ② 초기에는 사대부들의 생활과 성리학적 이념을 반영한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으나 후기로 접어들수록 남녀 간의 애정이나 일상적인 감정을 담은 작품들도 창작되었다.
- ③ 맹사성의 「강호사시사」, 이황의 「도산십이곡」, 이이의 「고산구곡가」는 연시조에 속한다.
- ④ 조선 시대의 시조는 개인의 정서보다는 집단의 정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 ⑤ 평시조의 율격에서 벗어난 사설시조도 발달하였으며 현재까지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